

포스트휴먼 로봇경제 시대의 정치철학:

4차 산업혁명과 홉하우스의 새로운 자유주의

박성진*

【요약】

인류는 현재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과학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이 변화는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는 물론 문화와 경제 그리고 정치의 구조 등 인간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추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일자리의 소멸과 독점이라는 미래사회의 핵심 난제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1, 2차 산업혁명 시기 영국사회는 생산량의 엄청난 증대를 경험하였지만 이와 더불어 가공할 만한 정도의 실업과 빈부격차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영국사회는 이러한 모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정치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정치철학에서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L. T. 홉하우스다. 그는 산업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기존의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를 통합하며 국가와 개인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공선’, ‘자아실현’, 그리고 ‘조화의 원리’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절대적 빈곤과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홉하우스가 제시한 이러한 새로운 자유주의의 사상은 ‘부의 사회적 요소’ 그리고 ‘시민적 최저선’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낸 포스트휴먼 시대에 유효한 정치철학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4차 산업혁명, 포스트휴먼시대, L. T. 홉하우스, 새로운 자유주의, 정치 철학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1023646).

I.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가공할 위협을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간과 과학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새로운 역사를 구성하여 왔다.¹⁾ 그리고 인류는 현재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과학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²⁾으로 불리는 이 변화는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는 물론 문화와 경제 그리고 정치의 구조 등 인간 사회에 구조적 전환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³⁾ 산업혁명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삶의 질 자체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미래사회의 핵심 난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자들은 향후 20년 내 많게는 일자리 가운데 47% 정도가 자동화와 로봇의 등장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미국 Forrest 연구소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2,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새로 창출될 일자리를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없어질 일자리 수는 910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⁴⁾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부터 이어져 온 기계혁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2차 산업혁명이 기계로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하고자

1) Bod (2015), p. 367.

2)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거나 강화하여 온 과정이었다면, 그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창출된 문명의 산물들을 통합하고 최첨단 기술들의 융합이 고도화되는 일종의 메타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인류 생존의 새로운 문법을 구축하는 문명사적 전환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적 생산과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수많은 우려 또한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민형 (2016) 참조.

3) Clocksin (2003), p. 1745.

4) 조용수 (2015), p. 13.

하는 것이라면 3, 4차 산업혁명은 기계로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모두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계를 탄생시키는 산업혁명의 완성이고 인공지능이라는 신(新)인류의 발생으로 인간이 노동은 물론 소비로부터 소외되어 경제의 순환구조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포스트휴먼시대가 인간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으로 인해 이미 경제와 과학 분야에서는 미래 사회의 혼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미숙련 노동에서부터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로봇경제(Robocconomy)’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⁵⁾ 하지만 각 분야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 분야에서는 포스트휴먼시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포스트휴먼시대는 사회 및 정치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공동체 체질 자체의 전환을 수반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제활동의 외곽으로 밀어낼 것이다. 아울러 기술혁신의 성공과 사물인터넷(IoT)의 네트워크(망)를 소유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⁶⁾ 그렇다면 바로 정치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공동체에 대한 체질적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이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과감한 정책적 행동만이 빠르게 변화하는 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다.⁷⁾ 그리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철학이 변화하는 정치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김원호 (2015), pp. 9-14.

6) 전홍배 (2015), p. 15.

7) Furman (2016), p. 4.

따라서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치철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대전환기 인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영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홉하우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국사회의 정치철학적 변화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철학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I. 포스트휴먼시대의 경제구조와 노동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인류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인간의 생활양식에서부터 경제구조 그리고 공동체의 성격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될 것이며 아울러 공동체의 본질, 나아가 정치의 본질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근미래 사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와 경제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는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⁸⁾ 이 사회는 사람과 사물,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지능형 연결로서 컴퓨터와 태블릿, 전화기 등의 전통적인 기기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과 알람시계, 철도 트랙과 가로등, 쓰레기통, 제트 엔진 등 대다수의 사물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고 소수의 회사만이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⁹⁾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의

8) 김진하 (2016), p. 49.

9) 존 체임버스, 김진희 외 역 (2016), pp. 178-179.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¹⁰⁾ 따라서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등 ‘초연결성’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O2O(Online to Online) 등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¹¹⁾ 사람-사물-공간이 모두 연결되어 그 경계를 희미하게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제거하며 다양한 경제주체, 산업, 학문, 문화, 계층, 국가가 보유한 유무형 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와 성장의 기회가 창출되는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¹²⁾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사회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생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산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공동체에 긍정적인 현상만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연결 사회는 경제구조의 독과점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연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회사가 미래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거의 모든 사물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혁신에 성공한 소수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하며 회사들 사이의 간극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이미 혁신의 속도나 전략에서 구글(Google)이나 IBM을 따라잡기는 힘든 상황이다. 백악관 보고서도 4차 산업혁명이 ‘슈퍼스타에 편중된 기술변화(super-star biased technological change)’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독과점 현상을 경고하고 있다.¹³⁾

4차 산업혁명이 독과점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대처

10) Brynjolfsson & McAfee (2014), p. 33.

11) O2O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를 총칭. 이에 대해서는 김진하 (2016), p. 52 참조.

12) 차두원 외 (2016), p. 190.

13) Furman (2016), p. 20.

해야 할 미래사회의 주요한 문제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 문제이다. “최근의 지능형 로봇과 소프트웨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각종 지적인 업무와 서비스 직무마저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더불어 로봇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용시장의 재편과 변화가 불가피하고, 현재 나의 일자리 역시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¹⁴⁾ 백악관 보고서 역시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서 단순한 업무가 아닌 직무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을 예측하고 있다.¹⁵⁾

예를 들어, 자율 주행차의 등장은 운전하는 인간의 보조 역할을 넘어 운송업계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자율 주행차는 신호등과 주변 차량 그리고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과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것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인식되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성을 나타낸다면 운전과 관련된 업종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택시 기사, 택배 기사, 트럭기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며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업종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미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는 구글(Google)은 자율 주행차가 도로상의 사고와 혼잡,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160만 킬로미터가 넘는 무사고 주행 기록이 보여주듯 기술적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결한 상태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단순 노무직의 일자리만을 위협하지 않는다. 숙련직이나 전문직의 일자리도 위협하고 있다. 의사, 약사, 주식 분석가, 기자, 번역가 등 상당 기간의 숙련과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도 인공지능에

14) 구분권 (2015), p. 11.

15) Furman (2016), p. 13.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Watson)은 뉴욕의 한 병원에서 최신 논문을 기반으로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의료정보 가운데 최적의 치료법을 발견해 의사들에게 제안하며, 인공지능이 의사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왓슨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관련 논문과 자료들을 읽고 분석해 연관성을 찾아내는 등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도 쓰이며, 연구원들의 일자리도 위협 중이다.¹⁶⁾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창의성의 영역도 침범하고 있다. 딥러닝(deep-learning)의 발달로 창의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간단한 업무에서 복잡한 업무까지 직무 자체를 변화시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은 임시직과 비정규직에 국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인간 자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인류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¹⁷⁾

혁신에 성공한 소수 기업에 의해 독과점이 가속화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 합당하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생활양식과 공동체의 체질 변화 등 사회의 총체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데 인류는 이미 이러한 대전환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2차 산업혁명 시기 영국사회는 생산량의 엄청난 증대를 경험하였지만 이와 더불어 가공할 실업과 빈부격차를 경험하

16) 차두원 외 (2016), pp. 148-152.

17) 차두원 외 (2016), p. 93.

였다. 영국사회는 이러한 모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정치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다음은 영국사회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계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1, 2차 산업혁명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산업혁명기 영국 사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정치철학과 현실정치의 변화 그리고 사회제도의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영국사회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자.

III. 전환기 사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

영국사회는 빅토리아 말기로 접어들면서 산업혁명이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가 허구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산업사회로의 시대적 전환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초래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초기 생산량의 증대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극심한 빈곤과 가공할 빈부격차의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다. 증기기관과 방적기계의 발명으로 생산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었지만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더욱 비참한 상황에 던져지게 되었다. 실제로 찰스 부드(C. Booth)가 1886년에서 1902년에 걸쳐 빈곤의 실상과 원인에 대해서 실증적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빈곤선(poverty line)’이라고 불리는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궁핍한 동부 런던의 인구가 런던 전체 인구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¹⁸⁾ 그리고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실업인 것으로

18) 박우룡 (2003), pp. 27-28.

밝혀졌다. 다음은 F. 엥겔스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책에서 당대의 상황을 묘사한 글이다.

이 구역과 이에 인접한 구역에는 상당수의 불결한 뒷골목이 있다. 많은 지하실들은 방문을 통해 햇볕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적어도 침대 하나는 가지고 있지만 적지 않은 주민들이 맨 마루바닥에서 잠을 잔다. 예를 들어 니콜슨(Nicholson)골목에도 28개의 낡고 조그만 방에서 151명이 절대적 궁핍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골목을 통틀어 2개의 침대와 2장의 담요밖에 없다. 더블린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유일한 자선단체인 멘디시티협회(Mendicity Association)도 하루에 인구의 1퍼센트인 2,500명을 받아들여 낮에 구호해주고 밤에는 쫓아버린다.¹⁹⁾

이처럼 증기기관과 방적기의 발명으로 인한 이익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처참한 빈곤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단순하게 일자리가 없는 상태(out of work)와 구분되어 ‘실업(unemployment)’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²⁰⁾ 빈곤과 빈부격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당대의 지식인들은 산업혁명이 야기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대가 오히려 실업과 빈곤계층을 확대시켰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낙관론에 경종을 울리며 새로운 대안과 변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산업혁명이 야기한 당대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하여 당대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과거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대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소한의 생계비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1909년 연간소득이 160파운드에 미달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실업대책법(Unemployment Exchanges Act)’을 제정하였다.²¹⁾ 그리고 1911년

19) F. 엥겔스, 박준식 외 역 (1988), p. 68.

20) 박성진 (2015), p. 31.

21) 오인영 (2001), p. 55.

노동자가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주당 7실링의 보험금을 최대 15주 동안 지급하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제정하였다.²²⁾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조세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들은 부(wealth)에는 사회적 가치가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공평한 조세제도가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새로운 조세법인 ‘인민예산(people's budget)’을 제정한다. 이 제도에는 토지세 및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율의 상향조정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소득세 징수 등을 포함하였다.²³⁾

다양한 실업정책과 조세제도에 대한 준비를 비롯하여 영국사회의 지식인들은 복지정책과 교육에도 변화를 추동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로연금법과 의무 교육제도의 확대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대되면서 노인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자 노인들이 그동안 사회 공동체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보상의 개념으로 양로연금법(the old age pensions act)을 제정한다. 이 법은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국가가 재정에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지적이며 정신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교육이야말로 산업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에 포함시켰으며 교육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처럼 실업과 빈곤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 등 산업혁명이 야기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당대의 지식인들은 많은 정책들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함께 이들이 수행한 작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철학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권리와 의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했다. 새로운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와

22) Handcock & Young (1996), pp. 597-602.

23) Murray (1973), p. 560.

기능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해야 했던 것이다.

장기간의 실업보다 사람의 사기를 더 저하시키는 것은 없다. … 아주 오래 실직한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퇴락한다. 그는 일하려고 신경도 쓰지 않게 되고 … 일자리를 얻거나 말거나 무관심해진다. 그는 결국 취직 못한 상태에서 아예 취직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버린다. 사람이 퇴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²⁴⁾

당대에 나왔던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빈곤의 나라에 빠진 사람들에게 국가는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대상이었고 기존의 자유방임적(laissez-faire) 정치철학으로는 산업혁명의 모순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지식인들은 정치철학을 수정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자유주의의 체질적 변화를 시도한다. 자연권(natural rights)에 기반한 기존의 자유주의를 구(舊) 자유주의(old liberalism)로 규정하며 새로운 정치철학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이다.²⁵⁾

장밋빛 미래를 제공할 것 같았던 첫 번째 기계혁명은 엄청난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이와 동시에 가공할 실업과 빈곤 그리고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하였다.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산업혁명의 이익은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당대의 지식인들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필요했고 이러한 변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철학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은 L. T. 홉하우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치철학이 제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4) Haw (1907), p. 52.

25) 박성진 (2015), p. 134.

IV. 전환기의 정치철학: 홉하우스의 ‘정의(Justice)’ 개념

L. T. 홉하우스(Leonard Trelawny Hobhouse, 1864-1929)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²⁶⁾ 또한 홉하우스는 고전경제학의 논리가 가져오는 구조적 모순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 인물로 자유주의 수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현실의 장에서 사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²⁷⁾

홉하우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산업화 시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국가’로 상징되는 공동체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했다.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더불어 공동체가 가진 가치관의 변화, 즉 정치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홉하우스는 고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역설하였고, 사회 혹은 국가와 개인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정의관을 제시하기 시작한다.²⁸⁾ 여기서는 홉하우스가 산업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치철학을 제시하였는지 그의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6)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자유주의’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발현한 정치철학을 의미한다. 새로운 자유주의는 헤겔의 철학을 수용하여 발현한 것으로서 기존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197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로 등장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자유주의는 인식론적 기반을 달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성진 (2017) 참조.

27) 박우룡 (2003), p. 96. 20세기 초반의 대표적 자유주의 이론가인 루지에는 홉하우스의 철학에서 밀과 그린의 사상이 현대적 형태로 재구성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Ruggiero (1927), p. 155 참조.

28) Hobhouse (1994), p. 3.

홉하우스가 자신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한 작업은 기존 정의론의 관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홉하우스는 기존의 정치철학이 제시하는 이분법적인 대립으로 인한 갈등, 즉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갈등 그리고 칸트주의와 공리주의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²⁹⁾ 그의 이러한 도전은 선(좋은)을 이익과 동일화하고 이성을 계산과 동일화하는 견해에 대한 도전이자 형식적 기준에 기초한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³⁰⁾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영국의 정치철학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홉하우스는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고 기존의 학설에 도전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공선(common good)’이라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가 ‘조화의 원리(the principle of harmony)’이며 나머지 하나가 바로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라는 개념이다. 홉하우스에 따르면 우선 정의는 공공선으로부터 도출되며 이 공공선이 사회정의에 있어서 법이나 규칙의 근거가 된다.³¹⁾ 하지만 홉하우스에게 이 공공선은 불변하는 보편적 명제로서의 칸트적 정언명령이 아니다. 공공선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선 혹은 좋음(good)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에게 좋은 것이 B에게는 좋을 수도 혹은 나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좋은’은 극히 개별적인 느낌이나 경험의 발현이라 할 수 있고 ‘좋은’은 개인적인 것이 된다. 하지만 ‘좋은’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쾌락이나 이익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 ‘좋은’이 홉하우스 자신이 극복하고자 했던 공리주의 혹은 결과주의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홉하우스는 개인에 대한 존재론적 성격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홉하우스에 따르면, 개인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이며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인이 평등한 사회적

29) Weinstein (1996), p. 487.

30) 홉하우스의 이러한 기존 학설에 대한 도전은 헤겔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찰스 테일러, 정대성 역 (2015), pp. 680-685 참조.

31) Hobhouse (1922), p. 119.

결합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²⁾ 개인은 이미 개별성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아실현의 존재라는 것이다.³³⁾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존재론적 재설정은 헤겔과 그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³⁴⁾ 다음은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가 설명한 헤겔의 개인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이다.

특수한 존재로서 우리 삶의 어떤 측면이 참다운 구체적 보편자, 즉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합리적 의지는 내용을 발견한다. 이성과 자유가 인간의 의지에 명령하는 것은 사물들이 자기 자신을 이념의 적절한 표현으로 드러내도록 사물의 구조를 진작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합하는 보다 큰 삶으로서의 사회와 관련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에 대한 요구는 원자론적인 자유주의적 형태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는 개별자와 이들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며, 사회의 임무는 개별자들의 이익의 충족과 더불어 타자의 이익의 충족도 승인하는 것이다.³⁵⁾

헤겔의 주장처럼 홉하우스도 개인을 ‘보다 큰 삶으로서의 사회와 관련을 맺는’ 존재로 규정하며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좋은’은 즉자적 차원에서 개인의 이익과 대자적 차원에서의 ‘나’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여 즉자-대자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을 완성하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자아실현의 완성은 공리주의적인 결과주의에 매몰되지도 않으며 칸트적 형식주

32) Weinstein, (1966), p. 488.

33) Hobhouse, (1921), p. 145.

34) 칼 포퍼와 같은 경우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홉하우스를 헤겔 철학에 대항한 대표적인 인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의 독일에 대한 비판적 자세만을 고찰하여 얻은 결론이다. 홉하우스의 인식론과 존재론은 헤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특히 그의 합리성에 대한 이론이 헤겔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서는 C. M. Griffin (1974), p. 652 참조.

35) 찰스 테일러, 정대성 역 (2015), p. 691.

36) 즉자-대자적 존재: 그것은 본디 그 자체로 있는 본질이며, 자기와 관계하는 것이고 규정된 것이며 외타적인 동시에 독자적인 존재로서, 결국은 자기를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머무르는 완전한 존재이다. 이에 대해서는 헤겔 (2013), p. 26 참조.

의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과 즉자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통일 속에서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행위, 즉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행위에서 홉하우스의 ‘좋은’이 구현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가 도출되는 것이다.³⁷⁾ 다시 말해, 홉하우스의 ‘좋은’은 ‘선(善)’과 ‘이익(利益)’ 모두를 포함하며 정의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좋은을 이야기하는 공공선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홉하우스에 따르면, 공공선 역시 불변하는 보편적 명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전환기나 격변기에 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수정이 있다면 공공선의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홉하우스는 노예제도의 폐지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으며 전쟁 상황에서의 공공선은 평시의 공공선과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³⁸⁾ 그렇다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공선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며 가치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선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 홉하우스는 이러한 질문에 우선 공공선은 각자의 개성이 억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⁹⁾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화의 원리’를 강조한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조화’란 개인의 ‘좋은’과 사회의 ‘좋은’이 서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선’과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 뿐 아니라 능동적인 상호원조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한다. 정리하자면, ‘공공선’이란 형식적 차원의 보편적 명제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며 동시에 개인들의 쾌락의 총합을 증대시키는 것도 아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각자를 동등하게 처우하며 구성원들의 발달을 허용할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선’은 모든 개인의 이익을 아우르며 개성을 토대로 성립되고 사회 구성원 각자의 개성이 자유롭

37) Seaman (1978), p. 783.

38) Hobhouse (1922), p. 129.

39) Hobhouse (1966), p. 233.

게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을 선결조건으로 삼는다.⁴⁰⁾ 하여 사회체제와 경제구조 및 법률 등 공동체 구성요소들은 이러한 공공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타자의 이익을 배제하는 독점은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라는 것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으며 경제구조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였는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었느냐가 되어야 한다.⁴¹⁾

홉하우스에게 정의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 좋음’의 발현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공선’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홉하우스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공공선을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주체는 국가였으며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정신과 인격이 자체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⁴²⁾ 따라서 국가는 ‘노동할 권리’와 ‘생계유지가 가능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수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부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홉하우스를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정치철학을 구축하였다. 과거의 자유방임적 국가관이나 공리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칸트적 형식주의를 넘어서 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극심한 빈곤과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다. 홉하우스를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들이 이러한 정치철학적 기반을 마련했기에 영국사회는 산업혁명의 모순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20세기 초반 영국의 지식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러한 생각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전환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홉하우스의 정치철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0) L. T. 홉하우스, 김성균 역 (2006), p. 124.

41) Seaman (1978), p. 785.

42) L. T. 홉하우스, 김성균 역 (2006), p. 146.

V.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자유주의

1,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의 육체적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지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기계는 인간의 정신적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생산량의 상승을 추동할 것이지만 동시에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시장경제의 외곽으로 밀어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 2차 기계혁명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자유주의의 사상은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안을 줄 수 있다. 인공지능 및 자동화 시스템은 과거처럼 다시 인간을 노동과 분리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도출된 사회적 문제는 흡하우스를 비롯한 1, 2차 산업혁명을 경험한 지식인들이 가진 문제의식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위치하지만 기존의 산업혁명들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도래할 사회는 인간의 본질적인 미완결성을 인공지능 등의 테크놀로지가 보완하는 사회이며 이와 동시에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사라지고 인간의 주체성이 다시 재정의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이다. 하여 흡하우스를 비롯한 20세기 초반의 지성사적 경험이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경험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흡하우스의 사상은 노동과 소득 그리고 부의 재분배 문제 등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흡하우스가 제시했던 많은 개념들이 4차 산업혁명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⁴³⁾ 따라서 여기서

4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소득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는 흡하우스가 제시한 ‘시민적 최저선’이라는 개념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4차

는 홉하우스의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부의 사회적 요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으며 인류는 이미 포스트휴먼시대로 접어들었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으로 대변되는 인류사회의 변화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Amazon)의 물류창고에는 이미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로봇들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로봇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한국이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2015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인 2025년 로봇에 의한 노동비용 감축이 3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라는 것이다.”⁴⁴⁾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산업혁명을 경험한 홉하우스의 정치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홉하우스의 정치철학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독과점과 일자리 감축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홉하우스는 ‘부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재산권의 근거는 사회에 있다는 것으로 재산권을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사회적 개념을 현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에 부응하도록 복원하는 것이다.⁴⁵⁾ 다시 말해서 재산권은 사회를 유지하는 안정된 질서 없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업사회에서 개인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라는 구조가 있어야 하며 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재산권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홉하우스가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의 담론에 대해서는 노상현 (2017), pp. 33-55 참조.

44) 차두원 외 (2016), pp. 37-38.

45) L. T. 홉하우스, 김성균 역 (2006), p. 170.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부(wealth)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 무시하는 극단적 개인주의를 경계하는 것이지 개인의 재산권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부의 사회적 요인을 무시하는 개인주의는 국가자원을 고갈시키고 산업생산물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분배권을 박탈하며 편중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초래할 것이다. 경제정의는 유익한 활동에 종사하는 각 개인이 받아야 할 보수뿐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개인적인 역할도 반영하므로, 그에게 지급될 보수는 그런 유익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런 역할과 그것에 대한 실질적 보상금의 평등이야말로 온전한 의미의 경제적 평등이다.⁴⁶⁾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홉하우스의 이론은 자본과 노동소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홉하우스가 제시한 ‘부의 사회적 요인’이라는 가치는 그의 정의관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과점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⁴⁷⁾ 왜냐하면 그의 이론은 근미래 사회 독과점으로 인한 이윤과 소득의 불균형을 억제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에 혁신기술의 개발로 인한 독과점 현상 자체를 막기는 힘든 일이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사회에서 독과점은 소비자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에 의해서 고착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삼성이나 애플 등 서로

46) L. T. 홉하우스, 김성균 역 (2006), p. 171.

47)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자원과 사회구성원이 전 세대원에게서 물려받은 자산에 대한 인식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자연자원은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정한 부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토마스 페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승엽 (2011), p. 31 참조. 그리고 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은 ‘정보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생산된 빅데이터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이론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정보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세금 정책의 변화에 있으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흡하우스가 제시한 ‘부의 사회적 요인’이라는 개념은 자유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이러한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4차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본질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노동하는 존재’가 아닐 것이다. 인간의 본질 중에 ‘노동’이라는 요소가 삭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혁신에 성공한 소수만이 알고리즘을 다루며 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인식하기 편한 방식으로 정보를 변형하는 등의 단순작업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가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흡하우스의 정치철학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에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2. 시민적 최저선(Civic Minimum)의 보장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 중 ‘노동’이라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며 대다수의 일자리가 로봇이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은 노동하지는 않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노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 스스로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재화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공공선의 구현을 정의로 하는 국가는 각 개인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재(primary goods)를 제공하며 시민적 최저선(civic minimum)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⁴⁸⁾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수혜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의

48) Seaman (1973), p. 791. 여기서 말하는 ‘시민적 최저선’이란 농민과 구분되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간다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홉하우스에 따르면, 국가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곧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노동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다.⁴⁹⁾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서 홉하우스가 제시한 ‘시민적 최저선’의 원리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게 하며 미래 사회의 안전장치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은 근로연계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주의적 고려사항에 의해서만 정당화되어 왔다. ‘최저임금제’와 같이 기본소득의 보장은 노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정당성을 찾아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전사회적인 복지권리운동의 경험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감을 제고하는 선도적 이념체계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⁵⁰⁾ 이러한 상황에서 홉하우스가 제시한 새로운 자유주의의 정의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이념체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본질 자체를 수정하는 대변혁이며 수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사회적 위기 현상이다. 홉하우스의 사유는 “인류가 물려받은 부는 그 세대가 바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로부터 교육 등을 통해 과학기술지식을 전수받았고, 세금 등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받은 것으로서 인간은 사회에 일정한 빚이 있다”⁵¹⁾는 철학으로 미래 사회에서 기본소득제나 시민수당 등 ‘시민적 최저선’을 구축하기 위해 토대로서 작용하며 사회에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다.

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을 의미한다.

49) Hobhouse (1922), p. 152.

50) 정혁인 (2008), p. 357.

51) 시민적 최저선이나 시민수당에 대한 이론은 ‘부의 사회적 가치’와 그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식주와 기초적인 문화생활 영위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소득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는 일정한 수당을 국민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⁵²⁾

위에서 제시하는 시민수당 혹은 시민적 최저선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영역 외곽에 존재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희망도 단순한 낙관적 전망에 가깝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목적 자체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하는 인간, 휴식이 필요한 인간, 오판을 하는 인간, 판단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간 그리고 감성적이며 비논리적인 인간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며 곧 다가올 포스트 휴먼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시민적 최저선의 개념은 단순한 이상적 선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홉하우스는 보즌켓(B. Bosanquet)을 비판하며 이상(ideal)과 실재(實在, actual) 사이의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다.⁵³⁾ 시민수당이든 아니면 기본소득제이든 위와 같은 시민적 최저선의 개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실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다.

VI. 나오며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휴머니즘 이후에 등장한 생각이나 이념, 특히 휴머니즘의 주장이나 생각을 극복하거나 넘어서려는 사상이나 운동을 뜻한다.⁵⁴⁾ 하지만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포스트

52) 양승엽 (2011), p. 30.

53) Hobhouse (1918), p. 58.

54) 이상욱 (2015), p. 23.

휴머니즘은 인간의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오히려 인간을 노동과 소비로부터 소외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중심이 된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포스트휴먼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노동의 외곽으로 밀어낼 것이며 인간의 본질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간의 노동은 단순노동에서부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로봇과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것이며 혁신에 성공한 소수의 기업이 미래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미래가 합당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만을 바라보며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이미 인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산업혁명으로 전환기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험했다. 구조적 실업과 가공할 빈곤 그리고 엄청난 빈부격차를 통해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산업혁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했는지 경험하였던 것이다.

하여 과거 기술적 대전환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시의 정치철학을 살펴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철학은 당대의 정책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유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며 정치철학은 공동체적 삶의 조건과 공공선, 그리고 인위적 관계망인 정치조직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정치철학은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며, 현실의 위기는 정치철학의 존재기반이다.⁵⁵⁾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기는 과거 영국사회가 경험한 위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시의 현실인식이 오늘날과 근미래 사회의 현실인식에 적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홉하우스가 제시했던 새로운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은 국가와 개인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포스트휴먼시대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가 제시했던 ‘공공선’, ‘조화’, ‘자아실현’ 등의

55) 유흥림 (2003), p. 7.

개념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점철된 시대에 국가와 시민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홉하우스가 제시한 새로운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이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영역에 모두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철학이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 이미 현실은 더 멀리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정치철학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진 자유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포스트휴먼시대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미래에서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지만,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듯 그 미래는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 또 다시 분투해야 할 미래일 것이다. 그 힘겨운 분투의 과정에서 선(善)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성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는 홉하우스의 새로운 자유주의는 포스트휴먼시대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참고문헌

- 구본권 (2015),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안내서』, 서울: 도서출판 에크로스.
- 김민형 (2016),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인간의 미래: 자동화 사회에 대한 통합 인문학적 연구』, 세종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원호 (2015), 「로봇이 일자리를 죽인다: 로봇경제, Roboconomy시대」, 『마케팅』 49(8): 9-14.
- 김진하 (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PEP InI』, 15: 45-58.
- 노상현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産業關係研究』, 27(2): 33-55.
- 박성진 (2015), 『새로운 자유주의의 재해석: 자유주의 역사의 재구성과 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7), 「신자유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 『인문사회21』, 8(3): 439-454.
- 박우룡 (2003), 『전환시대의 자유주의』,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 양승엽 (2011), 「시민수당에 대한 개념과 프랑스에서의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6월호: 29-39.
- 오인영 (2001), 「영국의 신자유주의와 자유당의 사회개혁입법」, 『영국연구』 5: 43-65.
- 유홍림 (2003), 『현대 정치사상 연구』, 고양시: 인간사랑.
- 이상욱 (2015), 「포스트휴먼시대의 정치사회적 쟁점」, Future Horizon, 26: 22-25.
- 전홍배 (2015), 「사물인터넷 기술의 개념, 특징 및 전망」,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4(1): 7-19.
- 정혁인 (2008), 「소득보장의 정치철학: 스투어트 화이트의 공정한 호혜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34: 357-381.
- 조용수 (2015), 「포스트휴먼시대 인공지능과 미래 경제 트렌드」, Future Horizon 26: 10-13.
- 조용욱 (2005), 「영국 산업혁명과 失業」, 『한국학논총』, 27: 211-244.
- 존 체임버스, 김진희 외 역 (2016), 「도시의 미래: 만물인터넷이 삶의 방식을 바꾼다」,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서울: 흐름출판.
- 차두원 외 (2016), 『잡 킬러: 4차 산업혁명, 로봇과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자리의 미래』, 서울: 한스미디어.

- 찰스 테일러, 정대성 역 (2015), 『헤겔』, 서울: 그린비.
-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준식 외 역 (1988),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서울: 두리신서.
- G. W. F. 헤겔, 김양순 역 (2013), 『정신현상학』, 서울: 동서문화사.
- L. T. 홉하우스, 김성균 역 (2006), 『자유주의의 본질』, 서울: 현대미학사.
- Bod, Rens. (2015), “A Comparative Framework for Studying the Humanities and Science,” *History of Science Society*, 106(2): 367-377.
- Brynjolfsson, Erik & Andrew McAfee. (2014),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Clocksinn, William F. (200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Philosophical Transactions: Mathematical, Physical and Engineering Science*, 361(1809): 1721-1748.
- Furman, Jason., John P. Hodren, Cecilia Munoz, Megan Smith, and Jeffrey Zients.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EOP) (Washington, D.C. 20502).
- Griffin, C. M. (1974), “L. T. Hobhouse and the Idea of Harmon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5(4): 647-661.
- Handcock, W. D. and G. M. Young (eds.), (1996), *English Historical Documents: Volume 10, 1874-1914*, New York: Routledge.
- Haw, George, (1907), *From Workhouse to Westminster: The Life Story of Will Crooks*, London: Cassell and Company.
- Hobhouse, L. T. (1921), “The Rational Good,”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_____ (1922), “The Elements of Social Justic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_____ (1966), “Sociology and Philosophy,” London: G. Bell for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_____ (1994), “Cambridge Texts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L. T. HOBHOUSE Liberalism and other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The Metaphysical Theory of the State,” Ontario: Batoche Books.

- Murray, Bruce K. (1973), "The Politics of the People's Budget," *The Historical Journal*, 16(3): 555-570.
- Ruggiero, Guido de. (1927),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 Trans. by R. G. Collingwoo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eaman, John W. (1978) "L. T. Hobhouse and Theory of Social Liberalism,"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4): 777-801.
- Weinstein, David. (1996), "The New Liberalism of L. T. Hobhouse and the Reenvisioning of Nineteenth Century Utilitaria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57(3): 487-507.

Abstract

Human beings are confronted with a new scientific age of transition which cannot be compared to the pas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human identity and making structural paradigm shift. However, it also brings job destruction and monopoly which could be a knotty subject on future societies. If so, politics has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gressively. And human beings already have these experiences of major shift. First an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s brought the a huge increase of production, however it also brought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the wid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ritish intellectual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olitics and tried to change politics. Especially, they endeavored to change political philosophy and L. T. Hobhouse was a great example of one of these intellectuals. He integrated utilitarianism with Kantianism and overcame a false dichotomy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And he suggested three concepts which are the principle of harmony, common good, and self-realization. Furthermore, L. T. Hobhouse asserted that 'good' does not mean a profit and rationality is not calculation. This thought of Hobhouse can expand the elements of social justice into the concept of 'social elements in wealth' and 'civic minimum' and could be very valuable political philosophy in the post-human era.

【Keywords】 Industry 4.0, The Post-human Era, L. T. Hobhouse, The New Liberalism, Political Philosophy

논문 투고일: 2017. 8. 25

심사 완료일: 2017. 10. 10

게재 확정일: 2017. 10. 10